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 전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

Effect of Grandchildren's Solidarity with Their Grandparents on Caring Attitude for the Elderly

홍달아기 · 하근영

원광대학교 가정복지정보학과

Hong, Dal Ah Gi · Ha, Keun Young

Division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andchildren's solidarity with their grandparents on their caring attitude for the elderly. The participants were 311 college students in Chollabuk-Do province. Such statistical methods as factor analysis,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olidarity with grandpar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llege grade, birth order, mother's and grandparents' educational levels, economic status of grandparent,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grandparents' ages.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grandchildren's caring attitude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college grade, occupational status of mother, relationship with parent, parents' educational levels, and family atmosphere.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grandchildren's caring attitude for the elderl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randchildren's affectional and contact solidarity with grandparents, relationship with parent, and grandparents' economic status.

Key words : the elderly, solidarity, grandparent, grandchild, caring attitude

I. 서론

현대사회는 인간의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해 노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 7.1%, 2022년에 14.3%, 2030년에는

19.3%로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은 1975년까지 3.4명, 1983년 2.1명, 1998년은 1.48명으로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1.56명(UN : 2000-2005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0).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가족관계 역동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Corresponding author : Hong, Dal Ah Gi

Tel : 063) 850-6652 Fax : 063) 850-7301

E-mail : dalhong@wonkwang.ac.kr

* 본 연구는 2000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해 고령인구가 수적으로 증가하여 여러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적인 주기가 길어지게 되었고,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자녀출산 및 양육기가 종전에 비해 빨라짐에 따라 조부모로 보내는 시기가 길어지게 되었다. 가족구조는 과거의 피라미드 가족구조에서 다세대가 존재하는 수직적이고 가는 콩깍질형 가족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Bengtson, 1992). 새롭게 등장한 다세대 수직적 가족형태는 가족 내 세대간의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느 가족관계보다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조상으로는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으나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확대가족의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호 호혜적인 가족 관계라 볼 수 있다.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3세대간에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로서 조부모세대와 손자녀 세대는 격세대인 점으로 미루어 부모자녀 2세대인 관계보다 자칫 소원해질 소지도 많으나 순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조부모-손자녀간의 유대관계는 조부모에게 있어서는 고독과 소외감해소와 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는 동시에 손자녀에게 있어서는 노년기에 닥치는 사회심리적 긴장을 미리 접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김태현, 1997), 문화적·정신적 연속감과 통합감을 전달받아 자아정체감 형성(Barranti, 1985 ; 백문화, 1992)과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차용은, 1980 ; 이선자, 1987). 즉 조부모는 손자녀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및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노인부양의식 및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의 가족구조에서는 당연히 조부모나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로 받아들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조부모나 부모와 서로 떨어져 살면서 적절한 교류와 지원을 주고 받는 별거형 부양의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노인부양은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강한 문화적 규범으로 잔존하면서 가족생활의 가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년기의 손자녀는 조부모를 도와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도움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그들의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손자녀인 그들도 필요할 때는 그러한 의무를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Hodgson, 1991 ; 이영숙 외, 2000, 재인용). 특히 젊은 세대의 내면화된 가치관과 규범의식이 향후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동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젊은 세대에게 현 사회에 적합한 노인부양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노인부양의지의 원동력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다(이인수, 2001). 손자녀에게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노인의 입장에서도 손자녀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부모-손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결국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과정에서 사회적·문화적 경험이 기성세대와 다르고 장래 고령사회의 1차적 노인부양책임을 지게 될 젊은 세대인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여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질적 향상과 노인에 관한 부양의식 형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배경변인에 따라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 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가족의 효율적인 기능과 활동 역량은 가족구성원의 긴밀한 세대관계 혹은 응집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내의 유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Bengtson은 세대간 유대관계를 '가치적 일치, 긍정적 감정, 빈번한 상호작용과 같은 세대간의 상호작용 특성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유대관계를 구조적 유대, 접촉적 유대, 일치적 유대, 기능적 유대, 애정적 유대, 규범적 유대로 분류하였다(김태현 외, 1996, 재인용). 이를 기초로 최정혜(1992), 신효식(1993)은 6개의 하위영역 중 구조적 유대와 규범적 유대를 제외한 상태에서 노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연구하였다.

세대관계에서 조부모-손자녀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손자녀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느끼는 친밀도(최혜경 외, 1992; 김연수, 1993; 백문화, 1992; 서정기, 1993), 전반적인 유대관계(장희경 외, 1995; 박경란, 1994),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이영숙 외, 2000), 손자녀가 받는 조부모의 도움정도(이인수, 2001)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감정적으로 가깝고, 접촉이 적을 때 조부모는 규범적인 역할에 따라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손자녀와 심리적, 정서적으로 분리된다(Kornhabor & Woodward, 1981). 또한 조부모는 손자녀의 사회화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에서 보여지는 정신적, 정서적 긴장감이 없으며 양 세대간의 상호작용은 더욱 편하고 공평하다. 그리고 조부모는 책임감 때문에 부모들이 제공할 수 없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손자녀에게 제공함으로써, 손자녀의 자존심과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는데 기여하고(박경란, 1994), 인간관계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제공해준다(Baranowski, 1982).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조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박의순,

1990; 백문화, 1992; 김연수, 1993; 서정기, 1993),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박의순, 1990; 서정기, 1992; 박경란, 1994), 조부모 경제상태가 좋을수록(백문화, 1992; 김연수, 1993; 서정기, 1993), 조부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최혜경 외, 1992; 백문화, 1992; 김연수, 1993; 서정기, 1993),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박의순, 1990; Hodgson, 1992; 백문화, 1992; 박경란, 1994)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조모와 손자녀의 애정적 유대관계가,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조부와 손자녀의 애정적 유대관계(최혜경 외, 1992)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손자녀가 장남(녀)이거나 외동인 경우 조부모와 공유활동이 많다는 연구결과(Kennedy, 1992)가 있는 반면에, 출생순위는 조부모와의 공유활동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이영숙 외, 2000)도 있어, 출생순위와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에 관련해서는 일관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를 손자녀가 지각한 조부모와의 상호보완과 상호의존으로 보고 Bengtson이 제기한 유대관계의 개념을 토대로 하고자 한다. 그중 규범적 유대관계는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하위영역으로 구조적 유대(거리 근접성), 접촉적 유대(접촉의 양, 활동의 양), 상호원조적 유대(도움주기·받기<서비스, 재정적도움>), 일치적 유대(가치관이나 신념의 유사성, 일치정도), 애정적 유대관계(긍정적으로 느끼는 따뜻함의 감정, 가까움정도) 문항을 설문지에 삽입하였다. 이러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를 다시 유형화해서 사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부양의식

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의식으로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부양의

식의 변화는 세대간의 부양에 대한 기대 욕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예측하게 함으로 의식 및 태도의 변화가 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이가옥, 1990). 일반적으로 노인 부양의식은 경제적·정서적·서비스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미래부양을 책임져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부양모델을 예측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면 대학생들의 부양의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이은경, 1999), 중년층, 노년층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각 세대 모두 부양의식이 높지만 청년세대가 중년, 노년세대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중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최정혜, 1998).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김송애 외, 1991; 한은주 외, 1997; 이은경, 1999; 최정혜, 1998), 고학년일수록(허훈, 1988), 장남이나 첫째일수록(서병숙, 1986; 임인혜, 1987),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허훈, 1988; 김송애 외, 1990; 한은주 외, 1997, 이은경, 1999),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록(이은경, 1999), 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김영미, 1995)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송현애, 1986; 임인혜, 1987; 옥선화, 1990)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임한순, 1992), 성별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최정혜, 1998; 이은경, 1999)도 있어 일관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도 종교를 가진 집단이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우미경, 1988; 김송애 외, 1991; 한은주 외, 1997; 최정혜, 1999)와 종교는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이은경, 1999)가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의식을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의식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국내외 선행연구들 중에서 이들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족 내 세대관계에서 조부모와 기혼성인자녀의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조부모-손자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하고자 한다. 분거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의식을 연구한 임춘희(1987)는 의무감보다는 애착과 갈등 같은 주관적인 유대관계가 부양의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정화(1988)는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부양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손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부모와의 바람직한 상호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과 세대간의 갈등의 정도(Burke, 1982),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차용은, 1980; 이선자, 1987). 이는 손자녀와 조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부양의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기의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감은 애정적 결속 뿐만 아니라 조부모를 통한 가계 연속감과 조부모라는 지위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규범적 결속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Kornharbor & Woodward, 1981) 노인부양의식 수준과 직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간에는 관련성이 있으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검증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조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척도의 구성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척도 : 본 연구에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는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부모와의 상호보완과 상호의존을 말한다.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는 Bengtson과 그의 동료들(1991)이 제시한 세대간 가족결속도 개념들에 기초하여 최정혜(1992), 신효식(1993)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부모 유대관계 정도는 응답자가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는 조부모를 중심으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각 문항들은 Likert-Type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각 항목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의 하위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유대관계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하였다. 항목들은 Varimax방식에 의해 회전되었다. 어느 요인에도 부하되지 않은 항목(4개)은 변별력과 수렴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구조적 유대에 관한 질문으로 '손자녀와 조부모와의 살고 있는 거주거리'를 단일문항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요인분석 결과 접촉적 유대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적 유대와 접촉적 유대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손자녀와 조부모와의 거주거리'

〈표 1〉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및 노인부양의식척도 문항

영역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비 (%)	신뢰도								
접촉적 유대	1) 명절, 제사, 생일 등의 특별한 날에 조부모와 어느 정도 만나십니까?	.75	6.02	37.60	.84								
	2) 특별한 일이 없이 조부모와 어느 정도 만나십니까?	.89											
	3) 조부모와 접촉(전화, 편지 등)의 어느 정도하십니까?	.82											
상호 원조적 유대	도움 주기	1) 조부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 2) 조부모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었다.	.88 .76	1.71	10.67	.58							
	도움 받기	1) 조부모가 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 2) 내가 어렸을 때 조부모가 나를 키워 주었다. 3) 조부모가 나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었다. 4) 조부모가 내가 아를 때 도와 주었다.	.80 .61 .81 .61				1.51	9.41	.79				
	일치적 유대	1) 인생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조부모의 생각이 비슷하다. 2) 돈에 대한 관념이나 경제관념은 나와 조부모가 비슷하다. 3) 일상생활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부모도 중요하게 여긴다. 4) 나의 성격과 조부모의 성격은 비슷하다.	.86 .83 .71 .78	1.26	7.85	.86							
		애정적 유대	1) 조부모는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2) 조부모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3) 일반적으로 조부모와 나는 서로가 협조적이고 사이가 좋다고 생각한다.				.75 .83 .74	1.09	6.78	.83			
노인부양의식			1) 생활에 그다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용돈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 2) 원하시는 여행이나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 3) 부모님이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목회 등에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부모님이 원하시는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했던 말을 되풀이 하시더라도 부모님의 특성을 이해하여 열심히 들어드려야 한다. 6) 일상생활에서 낡은 방법을 고집하시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7) 집안 일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8) 배우자와 부모님이 대립할 경우 부모님을 위해 양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9)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의 병간호(목욕, 대소변 처리)를 잘 해 드려야 한다. 10)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을 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 11) 부모님이 시키는 여행을 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 12) 부모님이 집안에서 하시는 가사 일이 과중하지 않은지 신경을 써야 한다.										.88

로 질문한 구조적 유대 1문항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16개 항목으로부터 5개 요인이 발견되었다. 요인 1에는 3개의 항목이 부하되었다. 이들은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한 대로 '접촉적 유대'라 명명하였고, 요인 2에는 2개의 항목이 부하되었다. 이들은 상호원조적 유대의 하위영역으로 '도움주기'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4개 항목이 부하되었고, 이들은 상호원조적 유대의 하위영역으로 '도움받기'라 명명하였다. 요인 4에는 4개의 항목이 부하되었고, '일치적 유대'라 명명하였으며, 마지막 요인 5에는 3개의 항목이 부하되어, '애정적 유대'라 명명하였다. 최종분석에 접촉적 유대 3문항($\alpha = .84$), 도움주기 2문항($\alpha = .58$), 도움받기 4문항($\alpha = .79$), 일치적 유대 4문항($\alpha = .86$), 애정적 유대 3문항($\alpha = .83$)을 사용하였다.

노인부양의식 척도 : 노인부양의식은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의식으로, 노인부양의식 척도는 김태현(1981), 고영애(1990), 김영미(1995)연구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Likert-Type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노인부양의식 척도의 점수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alpha = .88$).

통계변수 : 통계변수로는 성별, 학년, 종교 유무, 아버지 직업, 어머니 취업여부, 가정의 월수입, 출생순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본인과 부모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 조부모의 경제상태, 조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친밀하게 느끼는 조부모, 조부모 연령의 16개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인과 부모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는 단일항목에 의해 측정되었고, 응답카테고리는 ① '아주 좋은 편' ② '좋은 편' ③ '보통' ④ '나쁜 편' ⑤ '아주 나쁜 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좋은 편'이 5점, '좋은 편' 4점, '보통' 3점, '나쁜 편' 2점, '아주 나쁜 편'은 1점으로 처리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에서 가족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 조

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과 자기기입 방법을 병용하였다. 2000년 5월 2일부터 10일 까지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문항,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본 조사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에 실시하였다. 총 350부가 배부되어 분석에 적합하지 못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311부가 최종 분석자료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신뢰도, One-Way ANOVA와 t-Test,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 단순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고 SPSS Win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1. 배경변인에 따른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에 대해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Test를 가지고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배경변인에 따른 조부모-손자녀의 유대관계를 살펴보면 접촉적 유대와 관련해서는 성별, 학년, 아버지 직업, 본인과 부모의 관계, 조부모의 경제상태, 친밀한 조부모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즉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학년이 2-3학년인 경우, 아버지 직업이 농어민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친밀하게 느끼는 조부모가 친조부. 친조모인 경우 조부모와 접촉적 유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이 농어민인 경우 조부모-손자녀 접촉적 유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에 거주하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115(37.0)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2(42.2)
	여	196(63.0)		고졸	145(46.6)
학년	1학년	61(19.6)	본인과 부모의 관계	대졸 이상	34(10.9)
	2학년	43(13.8)		좋은 편	241(77.5)
	3학년	101(32.5)		보통이하	70(22.5)
	4학년	106(34.1)		가정의 분위기	화목한 편
종교유무	유교	177(56.9)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보통이하	87(27.9)
	무교	134(43.1)		좋은 편	200(64.3)
출생순위	장남(녀)	162(52.1)	조부모의 경제상태	보통이하	111(35.7)
	차남(녀)	149(47.9)		좋은 편	82(26.4)
아버지 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51(16.4)	조부모의 교육수준	보통	184(59.2)
	사무직	88(28.3)		나쁜 편	45(14.5)
	판매직 및 서비스직	73(23.5)		무학	110(35.4)
	농어민	49(15.8)		국졸	133(42.8)
	기타	50(16.1)		중졸이상	68(21.9)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111(35.7)	친밀한 조부모	친조부	23(7.4)
	비취업	200(64.3)		친조모	135(43.4)
가정의 월수입	150만원 미만	75(24.1)		외조부	17(5.5)
	151-250만원 미만	138(44.4)	외조모	136(43.7)	
	250만원 이상	98(31.5)	조부모 연세	70세 미만	47(15.1)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80(25.7)		70대	176(56.6)
	고졸	145(46.6)		80세 이상	88(28.3)
	대졸 이상	86(27.7)			

고 있는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가족주의 가치관이나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게 잔재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이 높아 조부모와도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조부모-손자녀 접촉적 유대가 높다함은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으면 손자녀를 만나거나 함께 활동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손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부모의 생활수준에 따라 동반활동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이영숙 외(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친밀하게 느끼는 조부모가 친조부모인 경우 조부모와 접촉적 유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외조부모가 친조부모보다 손자녀와 더 자주 접촉을 한다는 kahana & kahana(197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외가보다는 친가중심의 가족들과 잦은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상호 원조적 유대의 하위영역인 조부모에게 도움주기는 학년, 종교 유무, 조부모의 교육수준, 친밀하게 느끼는 조부모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2학년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 친밀한 조부모가 외조모인 경우에 손자녀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낮은 교육수준은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 오히려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조부모에게 손자녀가 재정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친밀한 조부모가 외조모인 경우 손자녀가 도움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손자녀들은 조부보다 조모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들은 조부들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Hess(1988)의 입장에서도 조명해 볼 수 있고, 조부들에게 비해 조모들의 경제적·물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및 노인부양의식

변인	구분	집착적 유대		상호원조적 유대				일차적 유대		애정적 유대		전체유대		부양의식	
		M(SD)	D	도움주기		도움받기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성별	남	2.70(1.14)		1.81(.79)		3.06(.10)		2.52(.83)		3.65(.95)		2.80(.66)		4.03(.59)	
	여	3.02(1.20)		1.97(.81)		2.99(.98)		2.51(.92)		3.83(.85)		2.90(.69)		4.11(.48)	
	t값	-2.35*		-1.75		.63		.01		-1.69		-1.27		-1.35	
학년	1학년	2.55(1.11)	a	2.01(.87)	b	3.02(.90)		2.43(.86)		3.70(.88)		2.81(.64)	ab	3.92(.63)	a
	2학년	3.18(1.19)	b	2.16(.94)	ab	3.22(1.01)		2.48(.83)		3.73(.85)		3.00(.70)		4.00(.53)	ab
	3학년	3.19(1.18)	b	1.96(.77)	ab	3.13(.91)		2.65(.83)		3.84(.84)		2.98(.62)		4.14(.43)	b
	4학년	2.73(1.15)	a	1.71(.69)	a	2.81(1.06)		2.45(.97)		3.72(.96)		2.72(.76)		4.15(.51)	b
	F값	5.58***		4.23**		2.58		1.17		.46		3.48*		3.28*	
종교 유무	유교	2.99(1.19)		1.99(.78)		3.06(.99)		2.52(.92)		3.82(.89)		2.92(.69)		4.06(.54)	
	무교	2.80(1.17)		1.80(.82)		2.95(.97)		2.50(.84)		3.67(.88)		2.79(.65)		4.11(.50)	
	t값	1.39		2.10*		.96		.25		1.48		1.71		-1.71	
아버지 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3.06(1.14)	ab	1.95(.78)		2.99(.96)		2.72(.85)		3.80(.77)		2.93(.61)		4.01(.43)	
	사무직	2.88(1.21)	ab	1.95(.75)		3.07(1.00)		2.55(.87)		3.67(.91)		2.87(.70)		4.04(.60)	
	판매직 및 서비스	2.76(1.11)	a	2.01(.85)		3.03(.91)		2.40(.84)		3.80(.90)		2.85(.62)		4.11(.52)	
	농어민	3.29(1.34)	b	1.86(.95)		3.13(1.03)		2.55(1.00)		3.83(.89)		2.95(.74)		4.25(.47)	
	기타	2.61(1.03)	a	1.71(.69)		2.82(1.03)		2.39(.87)		3.75(.96)		2.71(.71)		4.02(.51)	
F값	2.68*		1.22		.75		1.31		.37		.98		1.87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	2.91(1.19)		1.86(.83)		3.02(.99)		2.49(.95)		3.72(.92)		2.84(.70)		4.04(.54)	
	비취업	2.90(1.18)		1.94(.79)		3.00(.97)		2.53(.85)		3.78(.87)		2.88(.66)		4.16(.47)	
	t값	.07		-.76		-.17		-.42		-.62		-.53		2.07*	
가정의 월수입	-150	2.78(1.24)		1.79(.81)		2.97(.94)		2.37(.87)		3.72(.85)		2.76(.65)		4.01(.53)	
	151-250	2.94(1.15)		1.90(.78)		3.05(1.02)		2.54(.87)		3.75(.92)		2.88(.70)		4.10(.52)	
	+250	2.94(1.19)		2.02(.82)		2.99(.97)		2.59(.90)		3.80(.87)		2.91(.66)		4.11(.53)	
	F값	.52		1.65		.19		1.47		.14		1.17		.90	
출생 순위	장남(녀)	2.94(1.17)		1.90(.79)		3.19(.96)		2.59(.86)		3.80(.87)		2.94(.65)		4.05(.56)	
	차남(녀)	2.86(1.20)		1.92(.82)		2.83(.98)		2.43(.91)		3.71(.91)		2.78(.70)		4.12(.48)	
	t값	.57		-.24		3.27***		1.59		.92		2.17*		-1.21	
본인과 부모의 관계	좋은편	2.92(1.18)		1.92(.80)		3.02(.98)		2.51(.88)		3.76(.89)		2.88(.65)		4.09(.52)	
	보통이하	1.58(.57)		1.50(.58)		2.19(1.14)		3.06(.72)		3.58(.83)		2.84(.65)		3.47(.57)	
	t값	2.26*		1.03		1.70		-1.25		.40		-1.38		2.04*	
아버지 교육 수준	중졸이하	2.77(1.20)		1.79(.89)		2.82(1.05)		2.39(.91)		3.67(1.03)		2.71(.74)		4.20(.50)	b
	고졸	2.96(1.19)		2.00(.81)		3.06(.95)		2.53(.88)		3.82(.82)		2.92(.64)		4.06(.50)	ab
	대졸이상	2.93(1.17)		1.88(.69)		3.12(.97)		2.60(.87)		3.75(.87)		2.92(.66)		4.00(.57)	b
	F값	.73		1.76		2.24		1.23		.73		2.96		3.22*	
어머니 교육 수준	중졸이하	2.82(1.21)		1.80(.83)		2.80(.97)		2.47(.87)		3.60(.98)		2.72(.70)		4.12(.52)	b
	고졸	2.91(1.15)		2.01(.79)		3.11(.97)		2.53(.90)		3.90(.80)		2.94(.66)	ab	4.09(.49)	b
	대졸이상	3.20(1.25)		1.91(.74)		3.46(.89)		2.63(.86)		3.79(.74)		3.06(.58)		3.87(.62)	a
	F값	1.36		2.32		7.76***		.51		4.06*		5.50**		3.18*	
가정 분기	좋은편	2.91(1.19)		1.91(.81)		3.01(.99)		2.51(.89)		3.76(.89)		2.88(.37)		4.08(.52)	
	보통이하	2.00(.47)		2.00(.00)		3.13(.53)		2.63(.53)		4.00(.00)		2.73(.66)		3.67(.00)	
	t값	1.08		-.16		-.16		-.18		-.38		.32		3.79*	
조부모 경제 상태	좋은편	3.20(1.19)	b	1.96(.79)		3.38(.99)	b	2.79(.87)	b	3.96(.72)	b	3.06(.64)	a	4.00(.55)	
	보통	2.82(1.19)	ab	1.90(.81)		2.85(.97)	a	2.38(.86)	a	3.36(.85)	b	2.82(.63)	a	4.09(.52)	
	나쁜편	2.70(1.10)	a	1.87(.80)		3.03(.88)	a	2.54(.90)	ab	3.63(.95)	a	2.72(.67)	b	4.00(.49)	
	F값	3.61*		.26		8.56***		6.19**		4.91**		9.09***		2.14	
조부모 교육 수준	무학	2.76(1.20)		2.08(.80)	b	2.85(1.00)		2.39(.92)		3.70(.84)		2.73(.69)	a	4.16(.51)	
	극졸	2.87(1.19)		1.89(.78)	ab	3.18(.99)		2.56(.83)		3.71(.91)		2.92(.68)	ab	4.06(.55)	
	중졸이상	3.04(1.17)		1.72(.78)	a	3.06(.95)		2.60(.87)		3.83(.83)		2.95(.65)	b	4.00(.48)	
	F값	1.65		6.16**		2.60		1.84		.77		3.64*		2.42	

유의수준 *p<.05 **p<.01 ***p<.001

<계속>

〈표 3〉 계속

변인	구분	접촉적 유대		상호원조적 유대				일치적 유대		애정적 유대		전체유대		부양의식	
		M(SD)	D	도움주기		도움받기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좋은편	2.91(1.19)		1.91(.79)		3.03(.98)		2.52(.88)		3.78(.86)		2.59(.73)		4.28(.65)	
	보통이하	2.33(.89)		2.00(1.26)		2.25(1.05)		2.04(.90)		2.67(1.51)		2.27(.75)		4.08(.52)	
	t값	1.19		-.27		1.93		1.33		3.09**		2.03*		-.87	
친밀한 조부모	친조부	3.16(1.23)	b	1.74(.67)	ab	3.13(1.10)		2.66(.76)		3.54(.97)		2.88(.71)	b	3.95(.52)	
	친조모	3.21(1.25)	b	1.91(.74)	b	3.11(.92)		2.51(.89)		3.80(.85)		2.94(.64)	a	4.08(.51)	
	외조부	2.51(1.09)	a	1.47(.71)	a	2.44(.94)		2.21(.99)		3.41(1.00)		2.49(.73)		3.96(.62)	
	외조모	2.61(1.04)	a	2.00(.87)	b	2.97(1.01)		2.53(.88)		3.80(.90)		2.83(.69)		4.12(.53)	
	F값	7.27***		2.66*		2.62		.93		1.56		2.48		1.02	
조부모 연령	-70	3.10(1.18)		2.07(.89)		3.36(.95)	b	2.72(.77)		3.88(.76)		3.10(.61)	b	4.07(.59)	
	70	2.94(1.18)		1.87(.83)		2.95(1.01)	a	2.51(.90)		3.76(.86)		2.84(.70)	a	4.09(.49)	
	+80	2.73(1.19)		1.91(.70)		2.95(.91)	a	2.40(.89)		3.70(1.01)		2.79(.64)	a	4.07(.56)	
	F값	1.60		1.09		3.55*		2.02		.62		3.54*		.08	

유의수준 *p<.05 **p<.01 ***p<.001

리적인 자립상태가 낮기 때문에 손자녀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상호 원조적 유대의 하위영역인 조부모로부터 도움받기는 출생순위, 어머니 교육수준, 조부모 경제상태, 조부모 연령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남(녀)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보다 대졸이,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조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의 출생순위가 장남(녀)일수록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나타난 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가문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족 내에서 장자를 대우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관념들이 조부모 세대에 남아 있어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장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손자녀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조부모로부터 도움받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손자녀들이 조부모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라서 손자녀들이 조부모로부터 도움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손자녀들이 도움

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위의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도움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상태가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해 볼 때, 조부모의 경제적 상태는 조부모-손자녀 상호원조적 유대에 있어서 조부모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만, 조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 경우에는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치적 유대는 조부모 경제상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조부모-손자녀의 일치적 유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의순(1990), 백문화(1992), 김연수(1993), 서정기(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애정적 유대는 어머니 교육수준, 조부모 경제상태, 부모와 조부모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조부모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손자녀간의 애정적 유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 간의 전체유대관계는 학년, 출생순위, 어머니의 교육수준, 조부모 경제상태, 조부모 교육수준,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조부모 연령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2-3학년인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조부모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조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조부모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적인 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조부모-손자녀 전체유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자립은 손자녀와의 관계를 밀착시키기 위한 핵심변수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부모와 조부모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손자녀의 유대관계가 좋다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가 정서적으로 가까울 때 손자녀는 조부모를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각한다는 Hodgson(1992), 박의순(1990), 백문화(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또한 조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유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조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나 경제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월수입은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박의순(1990), 서정기(1992), 박경란(1994)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는 보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은 학년, 어머니의 취업유무, 본인과 부모의 관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정분위기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다는 것은 연령과 학년이 높은 만큼 부양의식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년이 될수록 부모부양의식 책임의식이 높다는 허훈(1988)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다고 지각할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관계는 직접적으로 부모노후의 부양도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경로 효친 사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다는 것은 위의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다는 것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인 동시에 그 가족의 환경적인 요인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부양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부양의식이 높아진다는 이은경(1999)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겠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노인의 경제적 자립은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과 더불어 가족내의 손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향상을 위해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는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본인과 부모의 관계, 가정분위기 지각정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가족관계의 질이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침을 증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이변이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또 이들 두 변수간의 관계가 제삼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의사관계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 다변이 분석기법의 하나인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래서 본연구에서는 단계별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5개의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변수들을 모델에 삽입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어서 선행연구들에서 논의 되어 왔던 배경변인들을 모델에 삽입하여 노인부양의식을 다중회귀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설명변량 R^2 을 통해), 또 변수들이 모델에 있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어느 정도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순효과를 제시해 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상관계수	방정식 I		방정식 II		
			B	Beta	B	Beta	
유대 관계 변수	접촉적 유대	.22***	.00*	.14	.00*	.15	
	상호원조적 유대	도움주기	.07	-0.00	-0.00	-0.00	-0.02
		도움받기	.12	-0.00	-0.09	-0.00	-0.00
	일치적 유대	.13**	-0.00	-0.03	-0.00	-0.02	
	애정적 유대	.30***	.18***	.30	.16**	.26	
통제 변수	성별(남자d)	-	-	-	.00	.01	
	학년	.17***	-	-	.00	.13	
	종교 유무(유교d)	-	-	-	-0.00	-0.07	
	출생순위(장남(녀)d)	-	-	-	-0.00	-0.05	
	아버지 직업(사무직d)	-	-	-	.00	.04	
	아버지 직업(판매 및 서비스직d)	-	-	-	.00	.04	
	아버지 직업(농어민d)	-	-	-	.10	.07	
	아버지 직업(기타d)	-	-	-	-0.00	-0.05	
	어머니 취업유무(비취업d)	-	-	-	-0.00	-0.07	
	가정의 월수입	.07	-	-	.00	.10	
	아버지 교육수준	-.14**	-	-	-0.00	-0.01	
	어머니 교육수준	-.12*	-	-	-0.00	-0.07	
	본인과 부모의 관계	.25***	-	-	.25**	.21	
	가정의 분위기	.05	-	-	.12	.01	
	조부모의 경제상태	-.12*	-	-	-0.00*	-.11	
	조부모의 교육수준	-.12*	-	-	-0.00	-0.05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	.06	-	-	-0.00	-0.04	
	친밀한 조부모(친할아버지d)	-	-	-	-0.00	-0.03	
	친밀한 조부모(외할아버지d)	-	-	-	-0.00	-0.02	
	친밀한 조부모(외할머니d)	-	-	-	.10	.09	
	조부모 연령	-.01	-	-	.00	.02	
R ²			.11		.25		
R ² 변화			.14***				

유의수준 *p<.05 **p<.01 ***p<.001
d : dummy 변수

(1) 상관관계의 분석 : 각 변수들과 노인부양의식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이 분석(bivariate analysis) 결과인 단순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조부모와의 유대관계 변수 가운데 접촉적 유대, 일치적 유대, 애정적 유대가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와 접촉이 많을수록, 가치관이나 신념이 비슷하거나 같을수록, 애정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아진다. 모델에서 통제변수로 가정한 16개 변수 중 7개 변인이 노인부양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년, 본인과 부모의 관계 변수는 노인부양의

식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부양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 조부모의 경제상태, 조부모의 교육수준과의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조부모의 경제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2) 다중회귀분석 : 먼저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개의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부양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하였다(방정식 I). 그 결과 이들 변수들이 공동으로 노인부양의식 변수의 변량 가운데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의식과 단순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의 정도를 보였던 3개의 유대관계변수 중 2개 변수만이 노인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순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촉적 유대와 애정적 유대만이 노인부양의식에 유효한 정적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변수들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의사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 위해 16개의 통제변수를 모델에 삽입하였다(방정식 II). 그 결과 이들 변수들이 공동으로 노인부양의식 변수의 변량 가운데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가한 설명변량은 14%였다. 분석결과,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변수 중 여전히 2개 변수가 노인부양의식에 유효한 정적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2개 변수가 노인부양의식에 유효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와 접촉적 유대, 애정적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부모-손자녀 애정적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다른 배경변인 보다도 대학생들이 평소에 조부모와의 사랑과 정서적인 친밀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조부모와 심리적인 친밀도를 유지하느냐가 부양의식정도가 높고 낮음에 중요한 열쇠라 하겠다.

이 결과는 조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관계가 아닌 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부양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조부모-손자녀 관계 증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을 파악하고,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질적 향상과 노인에 관한 부양의식 형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배경변인에 따른 조부모-손자녀의 유대관계를 살펴보면 접촉적 유대는 성별, 학년, 아버지 직업, 본인과 부모의 관계, 조부모의 경제상태,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친밀한 조부모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인 경우, 학년이 2-3학년인 경우, 아버지 직업이 농어민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친밀하게 느끼는 조부모가 친조부, 친조모인 경우 조부모와 접촉적 유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원조적 유대의 하위영역인 조부모에게 도움주기는 학년, 조부모의 교육수준, 친밀한 조부모 등에서, 또 다른 상호 원조적 유대의 하위영역인 조부모로부터 도움받기는 출생순위, 어머니 교육수준, 조부모 경제상태, 조부모 연령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도움주기는 1-2학년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친밀한 조부모가 외조모인 경우에 손자녀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로부터 도움받기는 장남(녀) 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조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적 유대는 조부모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유대는 어머니 교육수준, 조부모 경제상태,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조부모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손자녀간의 애정적 유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 간의 전체유대관계는 학년, 출생순위, 어머니 교육수준, 조부모 경제상태, 조부모

교육수준,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조부모 연령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2·3학년인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부모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조부모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적인 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은 학년, 어머니의 취업유무, 본인과 부모의 관계,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정분위기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이번이 분석에 있어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는 노인부양의식에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관계가 의사관계인지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배경변인들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변수 5개 변수 중 2개변수가 노인부양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와 접촉적 유대와 애정적 유대가 좋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애정적 유대관계, 본인과 부모의 관계, 접촉적 유대관계, 조부모의 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와 노인부양의식은 의사관계가 아닌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조부모-손자녀의 관계가 손자녀의 노인부양가치관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얼마나 질적인 조부모-손자녀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질적 향상과 노인에 관한 부양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에서 조부모의 경

제상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노인부양의식에 있어서도 조부모의 경제상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볼 때, 노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립은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기타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에는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는 조부모-손자녀관계,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을 볼 때, 가정의 안정과 효율적인 가족관계 유지가 세대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조부모를 이해하고, 자녀들이 조부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 주고, 자녀들에게도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조부모-손자녀관계의 향상과 노인부양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대학에서 노인을 이해하는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노인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노인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손자녀 관계향상과 부양의식 함양을 위해 손자녀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인들 또한 손자녀들이 노인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조부모역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노인, 유대관계, 조부모, 손자녀, 부양의식

참고문헌

- 고영애(1990).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애, 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김연수(1993).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1995). 청소년이 지각한 모-조부, 조모관계와 노인부양의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1997). 노년학. 교문사.
- 김태현, 김수정(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6(1), 110-129.
-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4(2), 74-89.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6호. 101-118.
- 서정기(1993).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 감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1990).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미경(1988).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옥(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 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3), 1-16.
-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이인수(2001). 대학생이 느끼는 조부모의 도움. 한국노년학회지, 21(1), 131-145.
- 임인혜(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춘희(1987). 분가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양의식 유형-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한순(1992). 농촌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경, 조병은(1995). 맞벌이 가족의 조모-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6(1), 211-224.
-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 9호, 12-23.
-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혜(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회지, 18(2), 212-230.
- 최정화(1988). 세대간 유대와 부모부양의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박의순(1992).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 62집 제 2호.
- 통계청(2000),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 한은주, 최배영(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95-116.
- 허 훈(1988).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8호, 89-106.
- Baranowski, M(1982),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s :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575-584.
- Barranti C. C. R(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 343-352.

- Bengtson(1992). 고행화 사회와 세대간의 관계, 미래사회와 노후생활. 노인문제국제학술세미나.
- Bengtson, V., & J. Robert,(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An example of forma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Burke, J. L.(1982). Young children'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4(3). 205-221.
- Hagestad, G. O.(1985), Continuity and connectedness. In Bengtson, & J.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Inc.
- Hess, L. A.(1988), The depiction of grandparents and their relationship analysis with grandchildren in recent children's literature : Content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tate College, PA : Penn State University.
- Hodgson, L. G.(1992). Adult grandparent and their grandparents : The enduring bon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3), 209-225.
- Kahana, B., & Kahana, E.(1970), *Grandparen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ing Grandchild. Dvelopment Psychologist*, 3, 98-105.
- Kennedy, G. E.(1992). Quality in grab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5(2). 83-98.
- Kornharbor, A. & Woodward, K. L.(1981). *Grandparents/Grandchildren : The Vital Connection*. NY : Anchor Press/Doubleday.

(2002. 2. 27 접수)